



◁제주 법화사는 3월25일 경내 구품연지 부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토를 맑고 푸르게”

연꽃·나무심기 새 방생문화 정착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서울 조계사 관문사, 순천 송광사등 전국사찰과 불교환경연대와 같은 단체들에서 나무와 연꽃심기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특히 이번 식목행사는 날로 문제가 되는 물고기방생을 대체하는 생명살리기 행사의 의미가 있어 관심을 끈다. 조계사(주지 지홍)와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수경)는 5일(토) 오전

부근 1400평에 홍련, 백련을 심는다. 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연화부수(蓮花浮水)의 형국인 송광사는 연꽃 단지를 조성하여, 여름부터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치와 향기를 공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천태종 관문사도 5일 주지 총광 스님을 비롯 사중스님들과 종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내에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조계사·불교환경연대, 보리수·잣나무 식수

송광사, 홍·백련 심어 풍경·향기 공양

10시 배화여자대학 뒷산에서 2547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푸른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위대한 환경사상이었던 부처님처럼 온 세상의 생명체를 위해 맑고 푸른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열리는 푸른나무 심기행사에서는 불교를 상징하는 나무인 보리수와 잣나무 400그루가 식수될 예정이다.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도 5일(토) 오전 10시~6일(일) 사찰입구 신평교

이에 앞서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3월 25일 2001년 북한인 구품연지를 중심으로 전통양식의 사찰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제주 제1의 성지 법화사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3월 30일 경기 양주 호국비룡사에서 제 12차 은행나무심기행사를 개최했다. 불자원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1천 그루의 묘목을 식재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자연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즉 자연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도 비워놓고 이렇게 나왔지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취임식이 있던 3월 24일,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는 8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한

“생명 지키려 절 비우고 나왔죠”

81세 노구 불구 환경보호 단식기도 해주스님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의정부 회룡사 회주 해주(慧珠)스님(사진)이었다. 조계사 앞마당에는 취임식 준비로 분주했지만 천막농성장에는 선방의 특유의 서릿발날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북한산이 풀리지 않게, 노무현 대통령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총무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줄길 바랄 따름이에요.”

스님은 “세만금이 수경스님이, 천성산과 북한산은 비구니 지울스님과 법현스님이 애쓰고 있다”며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비구니 비구니니 또 승가니 재가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온 불자 온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주스님은 59년 의정부서 도준스님을 만나 출가했다.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였지만 삶과 죽음, 인연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불법에 귀의했다.

스님은 40년간 미군 폭격으로 전 소된 회룡사를 복원했고, 79년 불교종립학교인 광동여고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다리품을 팔아 되살렸다. 또 자비회를 설립해 83년 지상 4층 규모의 자비유치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남동우기자

들숨 날숨 쉬며 “동포여 통일이여”

틱낫한 스님 전국돌며 특강·기도

방한 7일째인 틱낫한 스님은 3월 22일 서울시청 앞 평화열린 경기명상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장성 광주 순천 부산 대구를 방문했다.

스님은 22일 서울시청 앞 ‘틱낫한 스님 방한기념 평화열린’ 대회, 23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용스님 예방, 순천 송광사 보성스님과 다담 및 대중특강, 24일 법어사 행사교육원 특강, 부산 관음사 방문, 25일 KBS를 부산강연, 26일 대구 동화사 방문,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천도를 위한 걷기 명상 대법회, 경북대 대구강연을 가졌다.

스님은 “숨을 들이쉬고 두 걸음 내딛으며 ‘평화, 평화’를,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두 걸음 내딛으며 ‘통일, 통일’이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또 숨을 내쉬고 두 걸음 내딛으며 ‘평화, 평화’를,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두 걸음 내딛으며 ‘통일, 통일’이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법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틱낫한 스님 방한기념 평화열린’ 대회에서 스님은 베트남 전쟁의 고통을 떠올리며 15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열린 대회는 전쟁희생자를 위한 묵념, 2003, 서울 평화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서용스님과 틱낫한 스님은 3월 23일 장성 백양사에서 ‘참사람’



◁틱낫한 스님이 3월 23일 백양사를 방문, 서용스님에게 3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평화·생명의 메시지 전세계 번질 것”

정신과 ‘평화정신’은 같다는 데 합의하고, 고통받는 중생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3월 23일 승보총림 송광사에서 방장 보성스님과 틱낫한 스님이 덕담을 나눴다. 이어 틱낫한 스님은 대웅전에서 열린 특강에서 300여 사부대중에게 지금 현재 온전히 깨어있고, 그 상태에서 모든 현상을 통을 떠올리며 15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열린 대회는 전쟁희생자를 위한 묵념, 2003, 서울 평화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25일 KBS홀에서 부산강연에 나선 틱낫한 스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삼수했던 관음보살의 자비를 배워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분노, 고뇌, 번민 등의 고통은 말끔

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26일 오후 5시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사 1층을 방문해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까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천도를 위한 걷기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어 대구 동화사를 참배하고, 경북대로 이동해 대강당에서 3000여명의 시민들에게 강연했다.

○...틱낫한 스님은 3월 31일 10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 ‘바라제목차(계율의 항목)’에 대한 개강분을 배포할 계획이다.

천미희·남동우·박원구기자

“천성산 환경영향 재평가 어렵다”

한 환경장관 고속철 현장 무제치능 방문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으로 심각한 훼손에 직면한 늘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3월 26일 무제치능을 방문했다.

무제치능을 방문한 한명숙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울스님은 “고속철 노선이 지하 20m깊이로 계속 4곳을 관

통하는 곳도 있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천성산은 죽은 산이 되고 만다”고 훼손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한편 38일간의 단식을 회향한 지울스님은 4월 6일 천성산에서 ‘지울스님과 함께하는 열매지 꽃길 지나앉자 만나기’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천성산 홈페이지(cheonsung.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천미희기자



◁지울스님이 3월26일 무제치능을 방문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만나 고속철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달라이라마 11월 일본방문 예정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11월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 ‘티베트문제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의 초청으로 방일하는 달라이라마는 정관

계 및 종교계 대표 면담과 강연을 할 계획이다.

달라이라마는 지금까지 10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김원우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생(生) 지장도량 ‘심원사 지장전 증개축 불사’ 모연문

한국의 대표적인 지장기도 도량 보개산 심원사가 지장전 증개축 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심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생(生)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신앙의 근본도량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도 친경하기를 소망하는 지장보살님이 살아계신 절이라는 환희심에 심원사에는 경향각지의 불자들이 모여 지극정성으로 지장기도 응맹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원사 사기>에 역사적인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심원사 지장보살님은 90cm크기의 아담한 석불로, 순박한 얼굴에 자비한 미소가 매우 다정하게 느껴지는 보살님이십니다.

이 생(生)지장보살님은 지금까지 10여평 남짓한 지장전에 봉안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속에 건물이 쇠락해져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간도 협소해 기도하고자 찾아오는 불자들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심원사 대중들과 신도회는 경향각지 불자 대중의 간절한 발원을 모아 ‘지장전 증개축 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원사가 명실상부한 지장도량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금 규모의 두배가 넘는 30평 크기로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원사의 중요한 불전이자 한국불교 지장신앙의 상징이 될 이번 불사에 전국의 선남선녀들의 정성과 기도가 모여져 지장보살님의 위신력과 자비광명이 법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 지장경을 꼭 읽고 기도하셔야 할 분 ※**
- ◇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분
 - ◇ 원인을 몰라 병에 시달리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분
 - ◇ 하는 일의 결과가 자신이 노력을 들인 것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분
 - ◇ 유난히 모든일에 장애가 많은 분
 - ◇ 항상 깊은 잠을 못자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분
 - ◇ 유산 및 낙태를 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분
 - ◇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분

- ◆ 동참방법**
- ◇ 대들보 ◇ 기둥 ◇ 주춧돌 ◇ 기와 ◇ 서까래 ◇ 도리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전화 (033)455-3468**
- ◆ 심원사 찾아가는길**
- 서울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역앞에서 동승행 버스를 타고 ‘관인’에서 하차.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있고,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

심원사 영험 實話

"생물 지장보살"

심원사 지장보살님께 살아계신 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불임은 <심원사 사기>가 역 형제는 석상에서 화살을 뽑으려 사적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 애를 썼으나 화살은 뽑히지 않았 습니다. 고 석상은 계속 피만 흘릴 뿐 지금으로부터 1283년 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 전인 720년 어느날, 제는 크게 깨닫고 "대 이순석 이순애 형 성이시여 저희 잘못 을 깨우치러 몸소

나투신 것을 몰랐 습니다. 다시는 살 생을 아니하겠습니 다."하고 그 즉시 출가하 아나다가 환희봉 아래에서 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핏자국을 이처럼 멧돼지로 화현하셨던 그 따라 멧돼지를 추적하던 형제는 우물속의 석불이 바로 현재 심원 멧돼지는 없고 대신 우물 속에서 사에 봉안되어 계신 생(生) 지장보 자신들이 쏜 화살이 팔에 꽂힌 석 살<사진>이십니다.

국내 유일한 생(生)불이신 심원사 지장보살님